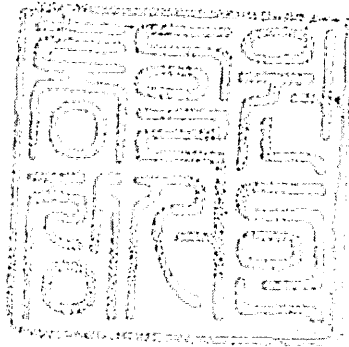


통분 96-9-24

# '96년도 상반기 북한경제 동향

1996. 9



통 일 원



# 목 차

1. '96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.....	3
2. 대내 경제동향 .....	8
가. 재정부문 .....	8
나. 건설부문 .....	13
다. 농림수산업부문 .....	17
라. 광공업부문 .....	26
마. 수송·통신 및 과학기술부문 .....	34
3. 대외 경제동향 .....	38
가. 대외무역 .....	38
나. 남북교역 .....	50
다. 나진·선봉지대 개발 .....	52
라. 대외경제협력 .....	55
4. 종합평가.....	63
※ 부    록 .....	67



## 1. '96년도 북한의 경제시책 방향

- 북한은 '95년과 마찬가지로 '96년에도 『신년사』 발표없이 『공동사설』(당보·군보·청년보)의 형식으로 간단히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음.

### 〈 『공동사설』 제목 〉

'95년도	“ 위대한 당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새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자 ”
'96년도	“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”

- 북한이 『공동사설』에서 밝힌 경제부문 시책방향은
  -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다지기 위해 농업, 경공업,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하며
    - 농업부문 : 알곡생산에서 결정적 전환 이룩
    - 경공업부문 : 인민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생필품의 생산 보장
    - 대외무역부문 : 수출품 생산의 결정적 증산
  -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의 돌파구인 석탄공업, 금속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힘을 집중하는 것임.

- 아울러 “한방울의 기름, 한줌의 석탄, 한와트의 전력, 한알의 낱알이라도 극력 아끼고 절약하라”고 하는 등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방안을 강구하는 것임.

- 그러나 '96년도가 완충기 종료년도임에도 불구하고, 이번 공동사설에서는 농업, 경공업, 무역제일주의 등 3대제일주의와 관련되는 구체적인 목표나 방향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완충기 과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상당한 정도 저하되었음을 반영하였음.

※ 종래 북한은 경제계획을 마무리 짓는 종료년도의 경우 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여타년도보다 구체적인 시책방향을 강도높게 제시

- 기간중 북한은 시·도 단위별로 『새해 총진군을 위한 군중대회』를 시작으로 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김부자 현지도 또는 기관·기업소의 창립 기념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이해진 노동기상을 바로잡는데 주력하였음.

< 김부자 현지도 또는 창립 기념보고회 개최 현황 >

일자	내 용
1. 10	○ 황해남도 해주시, 김일성 현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
1. 13	○ 황해북도 김일성 현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
3. 7	○ 김정일의 대동강여관 현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
3. 9	○ 김일성의 삼석구역 현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
3. 10	○ 김정일 함흥지구 현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

일자	내 용
3. 14	○ 김정일의 국제위성통신국 현지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
3. 27	○ 김부자 사리원시 현지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
4. 11	○ 김일성의 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 40주년 기념보고회
4. 17	○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 ○ 용성기계연합총국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
4. 20	○ 김정일의 평양방직공장 실습 35주년 기념 『평양시 근로자 총성의 결의모임』진행
4. 22	○ 김일성의 함경북도 현지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 ○ 김일성의 흥남항 현지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
5. 2	○ 김부자 송림시 현지지도 30주년 기념보고회 ○ 김일성의 중화군 인민위 현지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
5. 17	○ 향산호텔 창립 10주년 기념보고회
5. 21	○ 김일성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식 참가 50주년 기념보고회
5. 28	○ 김일성의 평양방직기계공장 현지지도 40주년 기념보고회
5. 30	○ 김일성의 평남 관개시설 시찰 40주년 기념 농근맹원들과 근로자 모임
6. 3	○ 박두선애국차봉사사업소 창립 10주년 기념보고회
6. 17	○ 김정일의 당사업 시작 32주년 즈음, 근로단체들 연구토론회
6. 18	○ 김정일의 당사업 시작 32주년 기념 중앙보고회

- 특히 1월중에는 사로청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 하고 청년근로자들로 하여금 김정일에 대한 『대를 이은 충성』과 함께 노력배가를 촉구하였음.

- 사로청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로 중앙보고대회, 전국청년과학기술 전시회 등을 비롯, 각종의 다양한 행사를 10여일간에 걸쳐 진행 하였으며
- 1.17~19 개최된 사로청 대표자회에서는 사로청을 『김일성 사회 주의 청년동맹』으로 명칭을 개칭
- o 뿐만 아니라 4월중에는 각 시·도 및 공장·기업소별로 청년학생 및 근로자 인민군 입대 탄원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완된 생산분위기 자극의 일환으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도 하였음.

〈 인민군대 입대 탄원대회 개최 현황 〉

일자	내 용
4. 7	o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청년 인민군 입대 탄원대회 o 개성시 청년학생 인민군대 입대 탄원대회
4. 8	o 신의주시 청년학생 인민군대 입대 탄원대회
4.10	o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·인민군 입대 탄원대회 o 김종태 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인민군 입대 탄원대회

- o 5월중에는 5.1절 기념행사와 관련 이종옥(부주석), 박성철 (부주석), 한성룡(당중앙위 비서) 등 당·정 고위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공장·기업소별로 기념행사를 개최, 예년에 없이 근로 자들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음.



- 또한 북한은 『노동법령』발포 50주년 기념 중앙보고회(6.24)를 통해 실황증거하면서 ‘북한의 노동제도는 가장 민주적인데 비해 남한은 노동악법으로 노동자들이 착취와 압박속에서 신음하고 있다’고 강변하였음.
- 이는 최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 근로자들속에서 이른바 『주체의 노동관』이 흔들리고 있음을 반영
- 한편, 북한은 전국직맹선전일꾼회의(2.23)를 소집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선동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전국 계획일꾼 열성자회의(4.3)에서는 계획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촉구하였음.
- 요컨대 '96년도 북한의 경제시책방향은
  - 무엇보다도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경제난을 타개, 회생시킬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음에 따라
  - 김일성의 『유훈』실현과 당의 『혁명적 경제전략』을 그대로 답습하는 가운데
  - ‘한줌의 석탄, 한알의 낱알’이라도 절약하는 한편, 청년근로자 중심의 노력배가를 통해 생산을 늘여보겠다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하겠음.

## 2. 대내 경제동향

### 가. 재정부문

#### (1) 최고인민회의 불개최

-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최고인민회의(제9기 8차회의) 불개최로 '95년 예산집행의 결산 및 '96년 예산을 승인하지 못함으로써 금년도에도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용하고 있음.
- 통상 북한은 매년 3~5월 기간중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여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함께 당해년도의 예산안을 확정, 이를 기초로 재정을 운용하여 왔음.
  - '54.4월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7차회의를 소집하여 '50~'53년 기간중 전쟁중의 예산집행 결과를 한꺼번에 결산하고 '54년도 예산을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는
  - 매년 3~5월 기간중 최고인민회의를 소집, 당해년도의 예산을 정례적으로 심의·승인해 왔음.
- 그러나 김일성 사망이후('94.7.6) 지금까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어 예·결산 심의·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

〈 최근 예산 승인관련 최고인민회의 개최 현황 〉

'90년	'91년	'92년	'93년	'94년	'95년	'96년
5.24~26	4.11~13	4.8~10	4.7~9	4.6~7	-	-

- 이와 같이 북한이 금년도에도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는 것은
  -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(5년)가 '95. 4. 21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등 비상적 상황하에서
  - 가장 큰 사안이 되고 있는 국가주석을 선거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산승인만을 목적으로 동 회의를 소집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무리가 뒷따를 뿐만 아니라
  -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세입이 크게 줄어드는 등 재정 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더이상 내세울만한 내용이 없는 예산안을 공개 채택하는데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.
- 따라서 금년도 북한의 예산 승인은
  - 북한 『사회주의 헌법』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상무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우선 그 권한을 암묵적으로 대행토록 하고
  - 향후 차기 최고인민회의(제9기 8차회의)개최시 지난해의 예산과 함께 일괄적으로 승인을 받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분석됨.

※ 『사회주의 헌법』 제101조 제1항 :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법안과 현행 법령의 수정안을 심의·채택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.

- 이와 관련, 북한은 지난해 10월 5장 55조로 구성된 『재정법』을 제정한데 이어 12월에는 정무원 결정으로 그 『시행규정』을 채택, 예산편성 및 집행의 통제권을 강화해 오고 있는 바, 이는 파행적인 재정운용에서 오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.
- 재정법 시행규정에서는 특히 『지방예산제 모범군 칭호 쟁취운동』과 『증산절약 모범 작업반 쟁취운동』과의 밀접한 연계를 강조
- 특히 북한은 4.3 이종옥(부주석), 한성룡(당중앙위 비서), 홍석형(국가계획위원장) 등 당·정 고위 관계자들을 대거 참석시킨 가운데 『전국계획일꾼 열성자회의』를 소집하였으며 4.5에는 전국계획일꾼 열성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였음.
- 동 회의는 계획부문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규모의 열성자 회의로서 주로 각급 계획기관들의 중앙집권적 계획화 기능 내지 통제적 기능 강화 방도를 토의
- 최근 북한은 지속적인 생산침체로 각 계획부서들의 실적을 위주로 한 과장보고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계획화 사업태도 역시 해이해짐으로써 재정부문의 올바른 계획 및 강력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.

- 또한 금년도의 재정운용은 북한이 지난해 7~8월 수재피해의 여파, 구조화된 경제적 악순환 등으로 재정수입이 대폭 감소할 것을 의식하고 초긴축 재정으로 운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신년사를 대신하여 발표된 금년도 공동사설(당보·군보·청년보)에서 북한은 『극력 절약』할 것을 강조

## (2) '94년 집행결과 발표

- 북한은 『조선중앙년감』'95년판('95.12.30 발행)을 통해 '94년 예산집행 결과를 뒤늦게 밝혔음.
- '94년 예산집행 결과는 수입 416억 20만원(193.5억달러), 지출 414억 4,215만원(192.8억달러)으로 1억 5,805만원(7,351만달러)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음.
- 군사비는 예산지출총액의 11.4%(계획은 11.6%)인 47억 2,440만원으로 발표
- \* 실제 군사비는 총예산 규모의 30%선인 57.8억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.

〈 '94년 예산집행 결과 〉

구 분	결 산 액	계획수행률	'93 예산집행	증가율
수 입	416억 20만원 (193.5억달러)	100.2%	405억7,120만원 (188.7억달러)	2.5%
지 출	414억 4,215만원 (192.8억달러)	99.8%	402억4,297만원 (187.2억달러)	3.0%
재정수지	1억 5,805만원 (+7,351만달러)	-	3억 2,823만원 (+1억5,267만달러)	-
군사비	47억 2,440만원 (22.0억달러)	98.1%	46억 2,794만원 (21.5억달러)	2.2%

※ 환율은 1달러 : 2.15원 적용

○ 이와 같은 발표내용의 특징은

- 재정흑자규모가 '93년의 3억 2,823만원에서 1억 5,805만원으로 절반이상 감소하였다는 점
- 총 예산지출에 대한 계획수행률이 99.8%('93년 99.5%)인데 비해 군사비지출이 당초계획(48억 1,692만원)의 98.1%('93년 98.6%)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임.

○ 북한은 건전재정을 과시하기 위해 매년 결산시마다 재정수입이 증가하고 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발표해 왔기 때문에, '94년도 예산집행 결과의 발표에 대해서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

- 북한의 재정흑자규모가 반감된 것은 생산침체에 따른 재정수입 격감으로 '94년도에 북한 경제침체가 전년보다 더욱 심화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
- 군사비 지출의 계획수행률이 '93년에 비해 더욱 낮아진 것은 경제난에 따라 인민경제비, 사회문화비 등 경제·사회문화 관련 예산 항목의 지출비중이 '93년보다 상대적으로 커졌음을 시사한 것임.

#### 나. 건설부문

- '96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경제건설은 전반적으로 전년동기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
  - 기간중 완공·조업된 북한의 건설실적은 총 13건으로서 건수면에서 경제건설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전년동기 수준(14건)을 밑돌았고
  - 건설대상도 대체로 탄광의 갱 건설, 저수지, 탁아소 등 소규모적 인 단위사업에 불과하였음.
  - 다만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원산~금강산간 철도부설공사(97km) 등 그동안 공사진척이 부진하였던 일부 주력 단위사업의 건설이 비교적 활발한 동향을 보였음.
- 종래 북한의 경제건설동향을 보면, 김부자의 생일시기인 2월과 4월 중에 치적 과시의 일환으로 건설실적을 집중 발표함으로써 표면상으로는 동시기를 전후하여 건설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던 것처럼 나타났었음.

- 금년도 2월과 4월중 북한의 건설실적을 보면 총 9건으로서 전년 동기 실적 10건을 다소 밀돌고는 있으나, 경제건설이 다른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김부자 생일시기의 경제 건설 치적화 정책이 아직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냈음.
  - 그러나 김정일 생일을 전후한 2월에는 6건인데 비해 김일성 생일을 전후한 4월에는 3건에 불과, 김일성 생일기념 경제건설 치적화 정책이 금년부터 퇴조하고 있음을 반영
- 금년도 상반기중의 건설실적을 내용면에서 보면 석탄공업, 전력 공업 등 이른바 『선행부문』을 보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.
  - 2~4개월 정도의 단기공사로 완료되는 소규모적인 탄광·광산이나 저수지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,
  - 전력부문 보강을 위해 금강산발전소 1단계공사를 완공하고 녕원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등 에너지관련 건설공사에 큰 관심을 보였음.
-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연례적으로 건설되어 왔던 기념탑, 동상 등과 같은 정치사상적 목적의 건설공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등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음.



- 전년동기에는 청류다리 2단계 및 금릉2동굴 건설, 당창건 기념탑 건설 등이 추진

○ 그러나 김정일 생일행사, 『평양축전』등 정치사상적 행사는 계속 함으로써 재정의 낭비적 지출이 여전하여, 경제건설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부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○ 이로 볼 때 '96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경제건설동향은

- ① 재정사정 악화에 따른 투자재원 부족, ② 정치사상적 목적 행사 개최로 인한 낭비적 재정지출, ③ 구조적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애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경제건설이 전년 동기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침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.

< '92~'96년도 상반기중 월별 북한경제 건설실적 >

(단위 : 건, 완공·조업기준)

구 분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총 계	월평균
'92년	0	19	8	40	5	2	74	12
'93년	2	6	2	7	3	2	22	4
'94년	1	3	1	14	0	0	19	3
'95년	0	3	2	7	0	2	14	2
'96년	1	5	0	3	1	2	13	2

〈 '96년 상반기 북한의 경제건설 현황 〉

구 분	시 기	내 용
완공·조업	1. 15	○ 온성군-왕재산간 무궤도 전차선 공사
	2. 14	○ 남양탄광 8갱
		○ 덕천탄광 남신갱
	2. 25	○ 강반석 탄아소
		○ 수원광산(유색금속 광산)
	2. 28	○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내 탄산칼슘 공장
		○ 메아리사격관(청춘거리 소재)
	4. 11	○ 경공업위 피복연구소 강화 대상 (UNDP 지원)
	4. 13	○ 12월화력발전소(5만kw급 1기)
4. 14	○ 정철구 대학(구 평양상업대학)내 김일성 명제비	
5. 1	○ 3월5일 저수지	
6. 2	○ 황남 신천군 학생소년회관 (건평 2,820m <sup>2</sup> )	
6. 30	○ 금강산발전소 1단계공사	
추진중		○ 원산-금강산간 철도부설 공사(97km) ○ 녕원발전소 ○ 황남 연안군 서해안 간석지 내부망 공사 ○ 황남 과일물길 2단계공사(64km)

## 다. 농·림·수산업부문

### (1) 농 업

- 상반기중 북한농업부문의 경제선동 방향은 지난해의 홍수피해로 인해 농촌의 사회적 이탈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실천적인 과업 제시보다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사상사업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음.
- 『농근맹』창립 50주년 중앙보고대회(1.30)에서 ‘앞으로 김정일의 사상과 영도에 충실하라’고 강조
- 김일성의 『농촌테제』발표 32주년(2.25)을 맞이해서는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농업위원회 국장 김용인과의 인터뷰로 대신
- \* 농촌테제 : '64.2.25 노동당 제4기 8차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김일성이 제시한 것으로 농업의 협동적 소유형태(협동농장)를 전인민적 소유형태(국유화)로 전환시키기 위한 북한 농업운용의 구체적인 과업과 방침
- 『토지개혁법령』발표 5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(3.4)에서는 김정일을 ‘모든 승리의 상징’이라고 극구 찬양하면서 앞으로의 과업은 무엇보다도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역설

- '94. 12월 농업연합기업소로 조직을 개편한 『속천군 농업연합기업소』는 『청년전위들의 충성의 궤기모임』(4. 30)을 통해 청년들이 ‘김정일 두리에 뭉친 선봉대·돌격대’로서 앞장서 줄 것을 촉구
  - 김정일 청산리 현지도 25주년 기념보고회(5. 11)를 개최하고 농업생산의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위해 모든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 촉구
  - 김일성의 평남 관개시설 시찰 40주년 기념모임(5. 30)에서는 대동강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완공된 서해갑문과 2천리 물길공사를 단지 김정일 치적만으로 돌리면서 김정일에 대한 충성 촉구
  - 김일성이 미림벌에서 첫 모를 낸 49주년 기념보고회(6. 6)에서 보고자 이영균(농업과학연구원장)은 ‘김정일의 두리에 뭉쳐 주체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자’고 강조
- 그러나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경제선동은
- 북한이 완충기중('94~'96년)의 중점과업으로 『농업제일주의』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
  - 지난해 7~8월의 수재 등으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농업 근로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다가
  - 농촌지역의 민심동요와 생활고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일탈현상까지 겹침으로써 선전적인 구호에 그치고 말았음.

- 상반기중 농업부문의 생산활동을 보면
  - 1/4분기중에는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지난해 흉수로 말미암아 수해를 입은 농경지 복구에 중점을 두면서 당·정 기관 및 인민군을 동원하여 농촌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
  - 2/4분기중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내기 전투를 비롯하여 김매기 전투, 거름생산, 영농물자 증송투쟁 등을 강도높게 전개하였으나,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이 현저하게 감퇴됨으로써 영농활동은 예년의 침체수준을 면치 못하였음.
  
- 특히 5월중순~6월중순 기간중에는 남포직할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모내기 작업(5.12)을 개시로 각지 협동농장들의 모내기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었으며 모내기 종료시기 또한 예년 평균보다 10일정도 늦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음.
  - '90년대이후 북한의 연도별 모내기 소요기일은 22~29일 정도였으나 금년은 5.12~6.15까지 35일 정도 소요
  
- 이와 같이 모내기 작업이 늦어진 것은
  - 예년 기온에 비해 3~4°C 정도씩 낮았던 4~5월의 저온현상으로 냉상모판의 어린묘 생육과 강냉이 이앙이 지연되었던데다가

- 논갈이, 씨레질 등 모내기 작업에 필요한 소농기구의 공급부실과 함께 식량난의 장기화로 인한 농업근로자들의 체력저하로 모내기 작업 속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
〈 '90년대이후 북한의 연도별 모내기 작업 현황 〉

구 분	'90년	'91년	'92년	'93년	'94년	'95년	'96년
시 작	5.11	5.10	5.9	5.5	5.5	5.12	5.12
종 료	6.5	5.31	6.3	5.31	6.3	6.6	6.15
소요일수	25	21	25	26	29	25	35

- 또한 상반기중 북한은 『농촌의 화학화』와 관련하여 비료공급난 해소의 일환으로 화학공업부 산하 각지 비료공장에 비료중산을 시달하는 한편, 협동농장들에는 기회 있을 때마다 『적기·적지』 시비를 통해 농작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것을 촉구하였음.
- 북한에는 남흥청년화학비료공장, 흥남비료공장 등 10여개의 공장 에서 연간 351.4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
- 실제 생산량은 '95년의 경우 생산능력 대비 34.4%인 120.9만톤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이 극히 부진
- 『농촌의 수리화』와 관련하여서는 기간중 남포시 서해갑문의 물을 은물군 서해리, 철산리 등으로 거쳐 과일군으로 연결하는 총연장 64km의 『과일물길』2단계공사가 추진되었음.

- 동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황해남도 과일군의 과수밭 뿐만 아니라 인접한 은률군에 개간된 약 3,200정보의 간석지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

※ 『과일물길』1단계 공사는 '92.5월 완공

- 상반기중 북한은 경지면적 확장의 일환으로 연초부터 이미 개간된 서해안 간석지에 대한 『내부망공사』(수로 개설·토지정리·하천 제방쌓기 등)를 적극 추진하였음.
  - 황남 연안군은 기간중 '93.8월 김일성의 현지도도로 착수된 140정보의 간석지를 농경지화 하는데 주력
  - 함경남도 금야간석지(1,300정보)에 대한 관개체계 형성의 일환으로 수백정보 규모의 3월5일 저수지 완공(5.2)
  - 염주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는 대계도 간석지(3,900정보) 내부망공사를 기본적으로 완료(7.2)
- 그러나 기간중 건설이 추진된 간석지 개간규모는 투자재원 및 노력부족으로 전년도보다 소규모화 되었으며 건설재원도 대부분 중앙의 지원이 없이 지방 자체적으로 조달되었음.
  - 지난해 한해동안 총 2,790여정보의 간석지 내부망공사 완공 (『평방』1.30)

- 한편, 축산부문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보다는 인민군에게 육류를 공급할데 대한 당의 방침('88년말 처음 제시)을 관철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생산활동은 전년동기보다 위축되었음.
- 축산물 증산의 일환으로 북한은 『전국 축산일꾼 열성자회의』 (3.6~7) 개최

## (2) 임업 및 수산업 동향

- 북한은 각종 산업용재 및 신탄재 생산을 위한 과도한 남벌, 농경지 확장을 위한 다락밭 건설 등으로 산림보존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임.
- 산림면적이 '70년 당시 990만ha에서 '95년 현재 940만ha로 감소
- 특히 지난해 7~8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북한의 산림자원은 더욱 황폐화되었음.
- 이에 따라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『봄철나무심기 월간』(3~4월)을 이용, 나무심기 궤기모임을 잇따라 개최하는 가운데 산림조성사업에 주력하였음.



- 『정무원 및 평양시 나무심기운동 관철 궤기모임』(3.15)을 시발로 하여 근로자, 여맹(3.18), 청소년학생 등을 총동원, 지역별·기관별 식수관련 행사를 연이어 개최
- 특히 식수절(4.6)에 즈음해서는 김정일이 국가과학원에 5만그루의 분홍꽃 아카시아 나무모를 전달하는 등 조림에 예년에 없이 큰 관심을 보였음.
- 금년들어 북한은 “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만년대계의 사업”이라고 하는 등 조림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바
  - 이는 '70년대 중반이후 농경지 확대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온 다락밭 조성 등 무분별한 산지개간으로 산림자원이 황폐화됨으로써
  - 지난해 7~8월의 집중호우시 수재피해가 더 극심했음을 뒤늦게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-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중의 식림사업은 주로 금수산기념궁전과 같은 정치사상적 기념물 주변의 원림녹화사업에 치중됨으로써 산림자원의 보호 및 조성에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음.
  - 김정일, 금수산기념궁전 주변 원림녹화사업에 모범을 보인 중앙기관과 평양시, 남포시, 평남, 황북의 기관·기업소들에 감사 전달

- 한편,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원·근해 어로작업, 양식업 등 모두의 생산활동이 전반적으로 예년과 같이 침체된 동향을 보였음.
  - 다만 운전수산사업소, 선봉수산사업소 등 유류 및 원자재 공급이 양호한 일부 수산사업소들만이 상반기 계획을 완수하였으며
  - 양식업에 있어서는 부포, 응진, 구미포, 평화 등 황남도내 바닷가 양식사업소들이 비교적 좋은 생산실적을 기록
  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절(3.22)을 계기로 북한은
  - '57.3.22 김일성의 신포지구 수산기지 현지도와 김정일의 수차례에 걸친 현지도에 감사를 표시하면서
  - 동·서해의 포구마다 대형 어선들과 냉동운반선, 탐색선 등 현대적인 배들이 갖추어지는 등 수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고 선전하였음.
  
- 그러나 실제로는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, 어로장비 낙후, 선박용 디젤유의 공급부족 등 조업여건의 악화로 어선의 출어율이 30%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, 어획고도 '90년이래 감소추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음.

〈 '90년대 이후 북한의 어획량 〉

(단위 : 만톤, %)

'90	'91	'92	'93	'94	'95
145.5 (△9.9)	120.0 (△17.2)	114.1 (△5.0)	108.9 (△4.4)	99.8 (△8.4)	105.2 (5.4)

주 : ( )내는 전년비 증가율임.

\* 북한은 현재 3,750톤급 선미트롤어선 등 총 4만여척(무동력 포함)의 어선을 보유

- 한편 금년도 상반기중 북한이 미역, 다시마 등의 양식과 함께 잉어, 붕어 등 민물고기를 저수지나 양어장에서 기르는데 주력하였음.
- 이는 북한이 수산업부문의 생산부진을 탈피하고자 기존의 『잡는 어업』위주에서 『기르는 어업』으로 전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됨.

〈 상반기 북한의 치어 방류 실적 〉

구 분	실 적
신천양어사업소	280만 마리의 치어 방류
평원군 석암양어장	160만 마리의 치어 방류
고원양어사업소	2억 7천만개의 잉어알 저수지에 방류
속천군 양어사업소	110만 마리의 치어를 양어장에 공급

## 라. 광공업부문

### [ 경제선동 ]

- 북한은 지난해 12.1부터 석탄공업부문 사로청 조직과 청년들에 『사회주의 경쟁조직 요강』을 하달하고 금년도 김일성 생일 (4.15)을 시한으로 3단계의 강도높은 노력경쟁을 실시한 바 있음. (로동청년, '95.12.2)
  - 노력경쟁의 주내용은 △ 사상교양사업과 정치선전, 경제선동의 강화 △ 일, 월, 분기별 수행정도의 점검 △ 석탄운송능력의 확대 △ 청년고속도굴뚝기운동의 확산 △ 설비·기대(생산라인)의 보수 및 총가동 △ 채탄방법의 기술 제고 등임.
- 또한 사로청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하여 사로청 대표자회(1.17~19)를 소집, 경제건설에서 800만 청년근로자들의 역할을 높일 것을 결의하는 한편,
  - 청년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그들의 생산활동을 집중 선전하였음.

〈 청년들의 경제적 성과 집중선전 동향 〉

- 서평양 기관차대의 청년기관사들은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견인정량보다 수천톤의 짐을 더 수송하였음.
-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, 강계청년발전소 청년들은 매일 20만, 5만 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고 있음.
- 9월방직공장, 혜산신발공장 등 여러 공장 청년들도 당의 경공업제일주의 방침 관철을 위해 인민소비품 생산량을 늘여나가고 있음.
- 전국 각지의 협동농장 청년들은 논밭의 지력을 높이며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해 나가고 있음.
-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청년들은 설비의 점검 보수를 간지게(빈틈없이)하고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고 있음.
- 강원세멘트연합기업소 석회석광산 청년들은 다량 채굴·다량처리 방법으로 일정계획을 120%이상 수행하고 있음.
- 용성기계연합총국 청년들은 10만<sup>m</sup> 송풍기, 송전기 등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.
- 500만의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철길건설에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 나가고 있음.

자료 : 1.20~1.31 기간중 북한발표 종합

- 이와 같이 기간중 북한이 각급 공장, 기업소 청년 근로자들을 경제 건설에 앞세우고 있는 것은
  - 경제적으로는 기층의 일반 노동자들 보다는 청년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노력경쟁을 촉발시키고 구조화된 노동기피현상을 타개해 보려는 것으로 보이며
  - 정치적으로는 청년운동을 통해 ‘김정일 두리에 몽친 선봉대·돌격대’로서의 청년전위를 육성함으로써 이완된 체제의 결속을 도모해 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.
  
- 또한 북한은 직맹원들중 주로 각급 공장·기업소에서 선전·선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들을 소집하여 『전국직맹선전일꾼회의』를 개최(2.23)하고
  - 김정일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직맹원과 근로자들에 대한 노력선동 및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.
  
- 그밖에 3.10에는 김정일의 함흥지구 현지도 10주년 기념보고회를, 4.22에는 김일성의 함경북도 현지도 50주년 기념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회있을 때마다 근로자들의 노력동원을 배가시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적극 전개하였음.

[ 부문별 동향 ]

- 상반기중 광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에 주력하여 최근 5년간 발견한 20여개의 탄광 및 광산후보지와 300여개의 지하자원 매장지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질도를 작성하였음.
  - 평양시 동남지구에서 수백만톤의 석탄, 함남 단천지구의 유색금속(비철금속)광물과 마그네사이트, 인회석 등과 150여개의 샘플 등
- 경공업 및 지방공업부문에서는 내수용보다 수출용제품을 중심으로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음.
  - 4.25 평양시 동대원피복공장에 김일성 훈장을 수여
- 특히 섬유·봉제공업부문에서 남한, 중국, 일본 등의 위탁가공교역이 지난해에 이어 계속 유지되어 비교적 활발한 생산동향을 보였음.
  - 상반기중 남북간의 위탁가공 교역규모는 3,392만달러로, 전체교역의 28.8%를 차지(승인기준)
  - 위탁가공제품이 대부분인 섬유류의 대일본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보다 18.3% 증가한 52억엔을 기록하였고, 대중국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보다 7.6% 증가한 1,539만달러를 기록

- 상반기중 에너지부문에서는
  - 재정사정 악화로 에너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
  - 탄광의 심부화 및 탄질 저하현상, 발전설비의 노후화 및 송배전 체계의 비효율성 등 구조적 요인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.
  
- 특히 북한의 에너지 주공급원인 석탄생산부문에 있어서는 순천, 덕천, 안주,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서부탄전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채탄기 부속품 생산기지를 조성하고
  - 연초부터 석탄증산에 주력하였으나, 탄광의 가채량 감소, 탄부의 노동의욕 감퇴 등으로 큰 성과는 없었음.
  
- 탄광건설로는 기간중 남양탄광 8갱, 덕천탄광 남신갱 등 2개의 갱이 완공되었을 뿐이며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의 무진대청년탄광이 6월들어 개건 확장에 들어갔음.
  - 6.14 무진대청년탄광개건확장공사 궐기모임 개최
  
- 다만 금강산발전소(81만kw), 녕원발전소(13.5만kw) 등 그동안 지지부진하여 왔던 수력발전소의 건설에 다시 의욕을 보이기 시작, 기간중 금강산발전소 1단계 건설공사가 완료(6.30) 되었음.
  - 동 발전소들에 김정일이 직접 시찰하고 건설을 독려(6.10 및 6.24)



- 또한 저열탄 발전소인 12월화력발전소가 부분 조업됨으로써 북한의 총발전시설용량은 전년도의 723.7만kw에서 728.7만kw로 늘어나게 되었음.
- 전력생산에 있어서는 김정일생일(2.16)행사와 관련, 전력생산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2월중 발전량이 특히 늘어났으며, 여타 시기에 도 KEDO로부터의 중유공급으로 전년동기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북·미간 기본합의에 따른 KEDO로부터의 중유공급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해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.
  - KEDO는 6월말 현재 금년도 중유지원분 50만톤중 24.6만톤을 지원
- 기간중 원유, 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규모는 금액면에서 전년동기보다 감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음.
  -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으로부터의 광물성 연료 수입 규모가 전년동기의 9천7백만달러에서 8천4백만달러로 13.4% 감소
- 기계·금속·화학·건설 등 북한의 기간산업부문에서는
  - 에너지부족, 기초 및 중간원료의 공급부족, 기술낙후 등에다가
  - 지난해 7~8월의 수재 여파를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예년보다 공장 가동율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.

[ 생산동향 평가 ]

- 북한은 매년 분기말이 되면 사회주의 노력경쟁의 일환으로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주요 공장·기업소들에서 분기별 계획이 초과 수행된 것처럼 선전해오고 있음.
  - 특히 연합기업소, 종합기업소 등 정무원 산하의 규모가 큰 공장·기업소들을 중점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쟁 유도
- 금년 상반기중에도 북한은 2/4분기말인 6월을 전후하여 일부 공장·기업소들이 『상반기 계획』을 완수하였다고 선전하였음.

〈 상반기 북한의 계획 완수 공장·기업소 현황 〉

분 야	공 장 · 기 업 소
화학공업	해주제련소 3유산직장, 남포유리제품수출품공장
에너지	신성탄광, 3.17 수력발전종합기업소
섬유공업	동대원피복공장, 개성송도피복공장, 신의주방직공장, 만경대피복회사
지방공업	광천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, 천리마구역영예군인일용품공장, 원산 설봉생산협동조합, 신의주수지 일용품공장, 평양 대동강철제일용품공장 등 700여개

- 금년도 상반기중 북한선전매체의 계획 완수보도에서 나타난 특징은
  - 계획을 완수한 공장·기업소의 보도 빈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

- 예년과는 달리 대형 공장·기업소의 수행실적은 언급을 회피한 채, 중소탄광, 지방공업 공장 등 규모가 영세한 생산단위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
  - 분야별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깊은 경공업과 지방공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.
- 이로 볼 때 기간중 북한의 광공업 생산은
- 선행부문의 석탄공업부문에서 채탄조건이 양호한 일부 탄광들만이 상반기 계획을 달성하는 등 생산이 부진하였으며
  - 원자재부족, 기술부족, 근로의욕 상실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연합기업소와 같은 대형 공장·기업소는 물론 생산단위들 대부분의 가동율이 계속 저하됨으로써
  -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해의 경제침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.
- 다만 경공업 및 지방공업부문의 계획수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북한당국이 최근의 어려운 주민생활을 의식하여 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.

마. 수송·통신 및 과학기술부문

(1) 수송·통신

- 상반기중 북한은 수송능력 제고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없이 철도 운수부문에서 전개해 오고 있는 기존의 『5.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과운동』에 의존하면서
  - 부수적으로 청년근로자들을 앞세워 화물차량 및 선로시설의 정비에 주력함으로써 수송실적은 전년동기 수준을 면치 못하였음.
- 기간중 북한이 상반기 수송실적을 완수하였다고 발표한 철도수송 조직들은 서포청년역, 해주철도분국, 청진철도국, 나진기관차대 등 일부 중·소규모의 철도수송조직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도로 및 해상수송에 있어서는 유류의 절대부족으로 수송실적이 전년동기 수준을 밑돌았으며 특히 원거리 수송실적은 극히 부진하였던 것으로 보임.
  - 금년도 상반기중에는 그동안 간헐적이거나 보도해 왔던 도로 및 해상수송에 대한 북한 선전매체의 보도가 거의 없었음.
- 상반기중 북한은 특히 원산~금강산간 철도건설공사에 주력하였음.
  - 북한은 청년근로자들로 구성된 『청년동맹』(구사로청)을 동원하여 동 건설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한 궤기모임을 개최(1.30)하였으며

- 이후에는 선전매체를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동 건설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

\* 원산~금강산 철도공사는

- 안변~구읍리(고성)간의 『동해북부선』(97km)을 건설, 원산과 연결시키는 공사로서

- '89년 김일성의 구상과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착공되었으나 토목자재·자금부족으로 지금까지 7년여동안 완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- 대외적으로는 5.9 북한·몽골간 『수송분야 상호협력 합의서』를 채택·서명하였음.

- 또한 6.17에는 북한의 철도부 대표단(단장: 박용석 철도부장)이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되는 『철도협조기구 제24차 상회의』에 참가하여 중국, 러시아, 몽골, 카자흐, 키르기즈스탄 등 회원국들과 화물수송문제를 협의하였음.

- 한편 통신부문에서는 기간중 체신수단의 현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나 별다른 실적이 없었으며, 다만 태국의 Loxley사와 합작으로 나진·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금년 9월까지 1,500회선의 통신망을 설치키로 하였음.

## (2) 과학기술

-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례적 행사인 『전국(지방)과학기술축전』(제11차)을 개최하였음.
  - 동 축전에서는 금년도가 완충기 마지막 해인 점을 감안, 당의 농업, 경공업, 무역제일주의 방침 관철에 제기되는 과학·기술적 문제 해결에 중점
    - \* 『전국과학기술축전』은 △ 공장·기업소 단위 △ 시·군·구역 단위 △ 도·직할시 단위 △ 중앙단위 순으로 과학연구 발표회, 새기술 도입성과 발표회, 기술혁신 현상 모집·전시회 등을 개최
- 특히 4.29~5.2 기간중 평양에서 개최된 제11차 『중앙과학기술축전』에서는
  -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각급 공장·기업소, 시·군·도 등 단위별로 진행되었던 『전국(지방)과학기술축전』을 총화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서
  - 내용면에서 금년에 종료되는 완충기('94~'96년)의 당면과제인 3대 제일주의 수행에 과학·기술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주안을 두었음.

- 또한 『조선과학기술총연맹』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(5.2)를 통해 과학자·기술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과 과학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음.
- 그러나 북한의 과학·기술은 기초과학보다는 연구결과를 산업현장에 직결시킬 수 있는 응용·개발연구에 치중함으로써
  - 대부분의 연구성과가 독창성이 없으며 실제 산업 및 과학발전에서의 기여도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.
- 대외적으로는 중국, 러시아, 스웨덴, 불가리아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음.
  - 북한의 특허총국은 스웨덴으로부터 선진공업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산업재산권의 ‘상호출원’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『공업소유권 협조 합의서』를 조인(1.17)
  - 불가리아와는 『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 제20차 회의 의정서』 조인(1.26)
  - 러시아와는 『무역·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1차 회의 의정서』를 조인(4.10~12)
  - 중국과는 『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5차 회의 의정서』를 조인(5.31)

- 한편 북한은 4.19~28 기간중 개최된 제24차 제네바 『국제발명, 새기술 및 신제품 전시회』(International Exhibition of Inventions New Techniques and Products)에 10점의 발명품들을 출품, 이들 모두가 수상하였음.

### 3. 대외경제동향

#### 가. 대외무역

- '96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무역실적은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교역이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냈음.
  -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13.3% 감소한 2.6억달러, 수입은 전년동기보다 5.0% 감소한 5.7억달러로 추정
  - 따라서 기간중 전체 무역액은 전년동기보다 7.8% 감소한 8.3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잠정 평가
  - \* 기간중 남북교역규모는 총 1.2억달러로 국별교역 순위면에서 중국, 일본에 이어 제3위를 차지



〈 '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액 잠정 평가 〉

(단위 : 억달러)

구 분	총 액	수 출	수 입
중 국	2.5(2.7)	0.3(0.3)	2.2(2.4)
일 본	2.3(2.4)	1.2(1.4)	1.1(1.0)
러시아	0.2(0.3)	0.0(0.0)	0.2(0.3)
기 타	3.3(3.6)	1.1(1.3)	2.2(2.3)
총 계	8.3(9.0)	2.6(3.0)	5.7(6.0)

※ ( )내 수치는 전년동기 북한의 무역실적

[ 중 국 ]

- '96.1~6월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은 2.5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9.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21.7% 감소한 3천만달러에 불과
- 대중국 수입은 전년동기비 7.2% 감소한 2.2억달러를 기록

〈 '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 〉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6년 상반기	'95년 상반기	증 감 율
총 액	247,549	272,086	△9.1
수 출	27,041	34,559	△21.7
수 입	220,509	237,527	△7.2

※ 자료 : 中國 海關統計 ('96.6월호)

※ 주 : 중국의 FOB, CIF 기준 통계

-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'93년이후부터 무역총액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, '96년 상반기중에도 수출·입이 모두 감소하였음.
  - 북한의 대중국 무역총액이 '94년에는 30.7%, '95년에는 19.1% 감소
  
- 기간중 수출규모 100만달러를 상회하는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 상품은 목제품, 철강, 광산물, 수산물, 플라스틱제품 등 총 8개 품목으로서 이들 품목의 수출규모는 대중국 총 수출액의 93.0%를 차지하였음.
  
- 특히 금년도 상반기중에는
  - 목재, 목탄 등 목제품이 증가하여 수출순위 제1위로 부상하였고 그 밖에 플라스틱제품이 75배, 전기제품이 26배 증가하는 등 일부 품목이 규모는 작지만 대폭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
  - 강철을 비롯한 비금속제품, 수산물, 광산물 등 주종 품목들의 수출이 모두 부진하여 전반적으로는 전년동기보다 21.7% 감소하였음.
  
- 또한 비료는 북한이 생산부진으로 매년 내수 충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되고 있는 바,
  - 이는 러시아 등 CIS제국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『중계무역』의 형식으로 수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.

- 한편 방직용 섬유제품의 수출증가는 남한, 일본 등으로부터의 위탁 가공제품 상당량이 북한에서 직접 수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
〈 '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 구조 〉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금 액	구 성 비	전년동기실적	증 감 율
목 재 품 (목재·목탄)	6,470 (6,409)	23.9 (23.7)	2,142 (2,122)	202.1 (202.0)
비금속제품 (강 철)	5,509 (3,117)	20.3 (11.5)	12,837 (11,618)	△57.1 (△73.2)
광물성 생산품	4,163	15.3	4,894	△14.9
동물성 생산품 (어류·갑각류)	3,455 (3,309)	12.7 (12.2)	6,042 (5,942)	△42.8 (△44.3)
플라스틱제품	1,673	6.1	22	75배
방직용섬유제품	1,539	5.6	1,425	8.0
화학공업제품 (비 료)	1,391 (1,185)	5.1 (4.3)	2,934 (2,571)	△52.6 (△53.9)
전기제품	1,106	4.0	41	26배
소 계	25,306	93.0	30,337	△16.6
기 타	1,735	6.4	4,222	△41.0
합 계	27,041	100.0	34,559	△21.7

-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수입상품을 살펴보면 광물성 연료, 방직용 섬유원료, 기계류 등 수입 주종 품목이 전반적으로 감소함으로써, 식물성 생산품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규모가 전년 동기보다 다소(7.2%) 줄어들었음.

〈 '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입상품 구조 〉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금 액	구 성 비	전년동기실적	증 감 율
광물성 생산품 (광물성연료)	89,502 (83,780)	40.5 (37.9)	101,842 (95,873)	△12.1 (△12.6)
식물성 생산품 (곡물) (제분)	48,260 (2,371) (40,726)	21.8 (1.0) (18.4)	22,727 (5,981) (7,736)	112.3 (△60.4) (426.4)
방직용 섬유· 제품	15,487	7.0	23,602	△34.3
화 학 제 품	13,874	6.2	16,083	△13.7
플라스틱·고무	12,351	5.6	16,077	△23.2
기 계 류	6,512	2.9	23,178	△71.9
소 계	185,986	84.0	203,509	△8.7
기 타	34,523	15.6	34,018	1.4
합 계	220,509	100.0	237,527	△7.2

- 특히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, 기간중 식물성 생산품의 수입실적을 보면
  - 중국측의 흉작에 따른 식량사정 악화, 북한의 어려운 외환사정 등으로 곡물 수입액은 전년동기의 598만달러보다 60.4% 감소한 237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
  - 밀가루, 옥수수 가루 등 제분은 전년동기 대비 426.4%로 대폭 증가한 4,073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
  - 전반적으로 식량수입은 금액면에서 전년동기 대비 112.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  
- 그러나 기간중 원유, 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은 전년동기의 1억 184만달러에서 8,950만달러로 12.1%나 감소해 북한의 당면한 에너지난을 부채질 하였음.
  
- 금년도 교역규모는 '93년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중국 교역규모의 감소추세와 금년 상반기의 실적을 감안할 때 지난해의 5.5억달러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.
  - 그러나 중국은 생필품과 공업용 원자재의 주요 공급자로서, 북한 주요 수출상품의 수요시장으로서 북한에 대해 특수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

- 앞으로 북한이 수출산업구조 개편, 시장 다변화 노력 등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북한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30% 이하로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

〈 최근 북한의 대중국 무역규모 추이 〉

'94년도		'95년도		'96년도
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 반 기
336,477	287,263	272,086	277,707	247,349

[ 일 본 ]

- o '96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일무역실적은 246.3억엔(2.3억달러)으로 전년동기보다 11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.
  - 대일수출은 130.9억엔(1.2억달러)으로 전년동기보다 3.8% 증가
  - 대일수입은 115.4억엔(1.1억달러)으로 전년동기보다 22.4% 증가
- \* 엔화의 환율상승으로 미달러화 베이스로는 전년동기보다 4.6% 감소

〈 '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 수출입 규모 〉

(단위 : 백만엔, %)

구 분	총 액	수 출	수 입
1월	4,043	2,225	1,818
2월	3,791	1,994	1,797
3월	4,370	2,361	2,009
4월	4,637	2,711	1,926
5월	3,112	1,819	1,293
6월	4,672	1,978	2,694
합 계	24,625	13,088	11,537

\* 자료 : 『外國貿易概況』(1996.6), 日本 關稅協會

\* 주 : 일본의 FOB, CIF기준 통계

○ 그러나 전년동기와 마찬가지로 수출보다 수입의 증가폭이 커 무역수지 흑자폭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동기의 3,290만달러 → 1,480만 달러로 감소

○ 상반기중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상품은 위탁가공제품인 의류, 수산물, 벗짚, 광물성 제품, 전기기기 등으로 이들 품목군의 수출규모는 대일본 전체 수출액의 89.9%를 차지하였음.

- 특히 전년동기에 비해 현저한 증가를 보인 수출품목들은 작은 새우(25.8배), 남자바지(6.1배), 목재(5배), 여성의류(4.4배), 주류(3.5배), 마그네샤크링카(3.4배) 등으로 나타났음.

〈 '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상품 구조 〉

(단위 : 천엔, %)

구 분	금 액	구 성 비	증 감 율
섬유제품	5,203,692	39.8	18.3
수 산 물 (갑각류·연체동물)	2,427,476 (2,327,254)	18.5 (17.8)	△1.6 (49.5)
식물성 생산품 (벼·짚)	1,864,649 (1,743,286)	14.2 (13.3)	33.3 (31.3)
금속제품 (비철금속)	974,733 (939,217)	7.4 (7.2)	△18.3 (△11.8)
광물성 생산품 (석 탄)	811,051 (811,051)	6.2 (6.2)	2.8 (2.8)
기계·장비 (전기기기)	500,198 (485,528)	3.8 (3.7)	19.7 (1.8)
기 타	1,306,074	10.0	△32.8
합 계	13,087,873	100.0	3.8

- 북한의 주요 수입상품을 살펴보면, 방직용 섬유원료, 기계·장비, 화학제품, 금속제품, 광물성 연료 등으로 이들 품목군의 수입 규모는 대일본 전체 수입액의 74.3%를 차지하였음.



○ 특히 전년동기에 비해 현저한 증가를 보인 수입품목은

- 곡물(61.2배), 중유(100.8배), 의료기기(5배) 등 당면한 경제난과 관련된 품목들을 비롯하여 인조섬유(6.6배), 방직원료(6.2배) 등 위탁가공용 원료품목들로 나타났으며
- 그밖에 니켈제품(2.3배), 묘목(4.8배), 동제품(3.6배), 각종 화학공업제품(5.7배) 등도 수입규모는 작지만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음.

< '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입상품 구조 >

(단위 : 천엔, %)

구 분	금 액	구 성 비	증 감 율
섬유·제품 (직물류)	3,706,361 (2,979,770)	32.1 (25.8)	15.9 (19.2)
기계·장비 (일반기기)	3,065,163 (927,504)	26.6 (8.0)	3.4 (△12.6)
(전기기기)	(935,429)	(8.1)	(△5.4)
(수송기기)	(940,199)	(8.1)	(20.1)
금속·제품 (강철)	607,776 (394,646)	5.3 (3.4)	24.1 (65.3)
유 류 (중유)	501,895 (481,081)	4.4 (4.2)	724.6 (9,983.4)
화 학 제 품	679,087	5.9	6.1
재 수 출 품	1,860,228	16.1	197.4
기 타	1,116,536	9.6	30.5
합 계	11,537,046	100.0	22.4

- 따라서 북한의 대일본 교역상품 구조는 금년도 상반기중에도 수출입 공히 상위 5대 품목군이 75~80%이상 차지함으로써 수출입 상품이 일부 몇몇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음.
- 금년도 북한의 대일본 무역규모는 최근의 교역상승세에 비추어 하반기중 쌍방간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
  - 하반기중 『엔』화의 환율상승이 계속될 경우 『미달러』화 베이스로는 지난해의 5.9억달러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됨.

[ 러시아 ]

- '96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실적은 2,2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3.3% 격감한 것으로 나타났음.
  -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동기비 33.3% 감소한 100만달러에 불과
  - 대러시아 수입 역시 전년동기비 33.3% 감소한 2,100만달러를 기록

< '9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 >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6년 상반기	'95년 상반기	증 감 율
총 액	22,000	33,000	△33.3
수 출	1,000	1,500	△33.3
수 입	21,000	31,000	△33.3

- 이와 같은 급감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경우 금년도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은 지난해의 8천만달러 수준에도 미달하는 부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#### [ 기타국가 ]

- 헝가리와는 상반기중 수출입이 모두 감소, 전년동기보다 13.9% 감소한 31.2만달러(수출 18.5만달러, 수입 12.7만달러)의 무역 실적을 기록하였음.
- 덴마크와는 '96년 1/4분기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5.8%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은 66.0% 증가함으로써, 무역규모가 전반적으로 24.8% 줄어들었음.
- 홍콩과는 '96년 1~2월중 수출 318.6만달러, 수입 599.5만달러로 총 918.1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보다 29% 감소하였음.
- 이태리와는 '96년 1/4분기중 수출 48만달러, 수입 890만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음.
- 싱가포르와는 '96년 1~4월중 전년동기보다 수출 74.2% 증가, 수입 27.9% 감소로 무역총액은 전년동기보다 25.3% 줄어들었음.

나. 남북교역

- '96년도 상반기 남북한 교역실적(통관기준)은 116,337천달러로서 전년동기 148,339천달러에 비해 약 21.5% 감소하였음.
- 반입 통관실적은 전년동기보다 28.6% 감소한 82,229천달러
- 반출 통관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3.0% 증가한 34,108천달러

〈 '96년 상반기 남북교역 실적(통관기준) 〉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6.1~6월	'95.1~6월	증 감 율
총교역 규모	116,337	148,339	△21.5
반 입	82,229	115,251	△28.6
반 출	34,108	33,088	3.0

주 : '95년 1~6월의 반출은 대북 쌀지원분(1만톤) 제외

- 또한 상반기중의 남북교역 승인실적도 117,935천달러로 전년동기의 180,447천달러에 비해 34.6% 감소하였음.
- 이중 반입은 82,761천달러로 전년동기의 136,670천달러에 비해 39.4% 감소했으며
- 반출은 35,174천달러로서 전년동기의 43,777천달러에 비해 19.6% 감소하였음.

○ 남북교역 승인 규모중에서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입에서는 17.2%, 반출에서는 55.8%, 전체 규모에서는 28.7%를 차지함으로써 남북한간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이 전년동기보다 확대되었음.

- 전년동기의 위탁가공 비중 : 반입 13.3%, 반출 30.8%, 반·출입 전체 17.5%

○ 상반기중 남북교역의 반·출입 상품 구조를 보면

- 반입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그동안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던 철강금속제품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반면 위탁가공품목인 섬유류의 구성비가 대폭 올라갔으며

- 반출상품 구성에 있어서는 섬유원료와 화학제품 비중이 80% 이상을 차지, 아직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음.

〈 '96년 상반기 주요 반·출입 품목 구성 〉

구분	'96년 상 반 기	'95년 상 반 기
반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강금속(61.5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괴, 아연괴, 은괴, 빌레트 열연</li> </ul> </li> <li>○ 섬유류(21.6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자셔츠, 바지, 면타월, 아크릴사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철강금속(80.6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괴, 아연괴, 빌레트, 은괴</li> </ul> </li> <li>○ 섬유류(7.2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남자자켓, 바지, 면타월, 아크릴사</li> </ul> </li> </ul>

구분	'96년 상 반 기	'95년 상 반 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·림수산물(12.1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한약재, 로얄제리, 호두, 복어, 냉동문어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(4.8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·림수산물(6.6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호두, 낙화생, 팥, 들깨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(5.6%)</li> </ul>
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섬유류(62.3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방직섬유, 의류부속품, 직물, 레이블</li> </ul> </li> <li>○ 화학제품(21.5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유, LDPE</li> </ul> </li> <li>○ 기계·전자(4.7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칼라TV부품, 신호 발생기, 각종 부속품, 지질조사장비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(11.5%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섬유류(58.3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직물류, 의류부속품, 지퍼, 단추</li> </ul> </li> <li>○ 화학제품(14.4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벙커C유, 플라스틱관</li> </ul> </li> <li>○ 광물·비금속제품(4.6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정광, 강관</li> </ul> </li> <li>○ 농림수산물(2.0%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밀가루, 밀기울, 콩기름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(20.7%)</li> </ul>

#### 다. 나진·선봉지대 개발

- '96년 상반기중 북한은 나진·선봉지대의 개발을 보다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방침하에 추진하였음.
- 2.7~9 남북한, 중국, 일본, 러시아, 몽골 등 6개국의 기업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『'96 니이가타 동북아시아 경제회의』에서

- 김응렬(대외경제협력추진위 부위원장)은 ① 기존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② 초기에 투자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부터 추진하여 ③ 단순하고 쉬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나진·선봉지대 개발의 원칙을 표명
- 특히 나진·선봉지대 개발 우선순위를 ① 중계 수송업 ② 관광업 ③ 공업부문의 순으로 수정, 비현실적인 것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주력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음.
- 북한은 그동안 중계수송기지·수출가공기지·국제관광지로 개발한다는 전략 견지

〈 나진·선봉지대 부문별 개발계획 〉

부 문	우선순위	개 발 계 획
중계수송업	1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만, 철도, 도로, 공장 인프라시설 확충</li> <li>○ 나진항과 니이가타, 마이즈루항 등 동북아 주요 항간 항로 개설</li> <li>○ 두만강 국제중계수송연합 기업 설립</li> </ul>
관광업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필요 서비스 시설 완비 이전이라도 당장 실현가능한 사업 추진</li> <li>○ 해상관광, 칠보산, 백두산, 금강산 관광</li> </ul>

부 문	우선순위	개 발 계 획
공업부문	3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0개 공업지구 설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각 지구별로 투자업종 지정</li> </ul> </li> <li>○ 1개의 모델공업단지 우선개발하고 점차 다른 공업단지 개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안이 가까운 신흥공업단지 우선 개발</li> </ul> </li> </ul>

자료 : 『'96 니이가타 동북아시아 경제회의』(2.7~9)시의 북한대표단 발표자료 정리

- 상반기중 나진·선봉지대의 개발현황을 보면
  - 북한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나진호텔의 완공에 주력하는 한편,
  - 신흥지구내 관광여관건설, 비파지구 관광도로 확장공사 등을 추진 하였을 뿐 이렇다할 만한 실적은 없었음.
  
- 상반기중 북한은 미국, 일본, 중국 등지에서 상담회 개최, 관련 인사 파견 등을 통해 서방기업이 나진·선봉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음.
  
- 그러나 동 지역의 Infra 시설의 미비, 사회·정치적인 폐쇄성 때문에 그동안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해외자본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.



- 북한은 『 '96 니이가타 동북아시아 경제회의 』(2.7~9)를 통해 나진·선봉지대에 대한 계약실적을 33건에 3억 5천만달러, 실제 투자금액은 2천만달러로 발표
- 동경투자설명회(7.15)에서 김수용(김일성종합대 교수)은 계약 실적 49건, 3억5천만달러, 실제 투자 3,400만달러(22개 사업)로 발표

#### 라. 대외경제협력

- 한편, 김정우(대외경제위 부위원장)는 4.22 미국 조지워싱턴대 주판 세미나에서 ‘북조선 대외경제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’라는 제하의 기조연설을 하여 주목을 끌었음.
- 김정우는 북한이 사회주의 시장상실에 따른 충격 극복을 위해 ‘신기원을 이루는 대외경제 관계 정책의 전환’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면서
- 개도국인 동남아, 중동시장 그리고 고기술 도입이 가능한 선진 자본주의국가의 순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주장
- '96년 상반기중 북한은 지난해의 수재 피해로 주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식량, 생필품 등 수재물자 지원을 가능한 한 많이 획득하는데 역점을 두었음.

- 특히 북한은 『지원거부·지원호소』의 극단적인 양면전략을 교차적으로 구사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수재물자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음.
- 외교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수재문제가 일부 불순세력에 의해 정치화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추가적인 수재지원 거부 가능성 시사(1.20)
- 『동북아시아의 에큐메니칼 나눔과 연대회의』에서 조선기독교도연맹 황시천 국제부장은 『수재피해 대책의 필요성』이라는 제하의 특별보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수재지원 호소(2.1)
-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미진한 반응과 군부의 반발 등을 이유로 UNHCR의 추가 대북 수재지원 호소계획을 중지할 것을 요청(2.2)
- 『북한 붕괴 조짐』이 농후하다는 국제여론을 의식하고 이를 반박하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발표(3.4)
- 북한 스스로 IFRC에 추가 수재 지원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여타 서방 자본주의 국가 및 국제기구들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북 원조를 요청(3.22)
- 『큰물피해대책위원회』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수재지원 부진이 남한측의 『방해책동』 때문이라고 비난(3.28)

- 이 철 주제네바 북한대사가 국제사회에 추가 수재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UNDHA 제네바 사무소에 전달(3.29)
- 그러나 기간중 국제기구가 모금한 실질적인 수재지원 규모는 북한의 기대에 크게 미달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음.
- 6월말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수재지원 규모는 4,880여만 달러에 불과
- 상반기중 북한은 대 중국 친선·경제외교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전개, 정치적 친선은 물론 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였음.
- 『여맹』대표단(4.18~28), 홍성남 부총리(5.21~25), 과학기술 협조대표단(5.27~6.6), 외교부대표단(6.4~13) 등 중국 방문
-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 대표단(2.6~10)), 청년정치 학원대표단(3.26), 문화대표단(4.3), 경제대표단(5.29~6.19), 전력공업대표단(6.12~19) 등 북한 방문
-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(5.22),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5차 회의 의정서(5.31) 등 조인

-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의 일정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 소련 붕괴 이후 중단되었던 쌍방 고위 경제대표단간의 회담을 재개하였음.
  - 『조·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』 제1차 회의(4.10~12)를 진행하고 의정서 조인
  - 러시아연방 국가회의 대표단을 초청(5.26~29)하여 쌍방간 친선 유대 도모 및 협력관계 증진 도모
- 그 밖에 북한은 식량 등 긴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4.2~16 무역대표단(단장: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)을 베트남에 파견한 것을 비롯, 이집트, 이디오피아, 시리아 등 중동·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접촉하였음.
- 상반기중 북한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낙후된 과학·기술 분야의 육성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음.
  - 스웨덴, 불가리아, 러시아, 중국, 유고 등의 국가들과 과학·기술협력 문제 협의
- 상반기중의 합영·합작실적으로는 2.6 조선 대성은행과 홍콩페레그린사가 운영하는 합영은행, 『페레그린-대성은행』과 (주)대우와 조선삼천리총회사가 합영으로 설립한 남포공단의 『민족산업총회사』가 조업한 것 외에 이렇다할 만한 실적이 없음.

- 전반적으로 볼 때 '96년도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경제협력활동은
  - 구조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지난해의 수재 피해로 북한 주민의 생활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
  - 생산·투자 부문에 대한 협력보다는 국제사회로부터 소비·민생 부문의 지원을 보다 많이 획득하는데 역점을 둬으로써
  - 자생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외경제협력의 성과는 극히 부진하였던 것으로 평가됨.

〈 '96년도 상반기 북한의 경제협력협정 체결 현황 〉

시기	대 상 국	내 용
1.17	스웨덴	○ 북한·발명총국·스웨덴 특허총국간 『공업소유권 분야 협조』에 관한 합의서 조인
1.26	불가리아	○ 북한-불가리아 『경제·과학기술협의회』제20차 회의 의정서 조인
2.27	중 국	○ 평양시 만경대구역-중국 길림시간 친선활동에 관한 합의서 조인
4.12	러 시 아	○ 북한-러시아 『무역·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』제1차회의 의정서 조인
4.21	시 리 아	○ 원산시-라따씨아시간 친선 및 자매관계 설정 합의서 조인
5.10	몽 골	○ 수송분야에서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
5.31	중 국	○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5차회의 의정서 조인
6.19	중 국	○ 조·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49차회의 결정서 조인

〈 '96년 상반기중 주요 경제협력 활동 〉

시 기	내 용
1. 2	○ 북한 경제대표단(단장: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), 제8차 아시아지역 무역상회의 참가차 요르단 향발
1. 23~27	○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회 대표단(단장: 시몬 미시리아·태 부부장), 북한 방문
1. 23~27	○ 불가리아 경제대표단(단장: 이반벨 체프 무역 및 대외 경제 협조성 부상), 북한 방문 - 경제·과학기술협의회 제20차회의 의정서 조인(1.26)
1. 27	○ 북한경제대표단(단장: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), 세계경제 연단연차회의(WEF)에 참가차 스위스 다보스로 향발
1. 27~2. 1	○ 조선기독교도연맹대표단(단장: 강영섭), 마카오 방문 - 『동북아시아의 에큐메니컬 나눔과 연대회의』(마카오 회의)에서 『수재피해 대책의 필요성』이라는 제목으로 특별보고(2.1)
2. 6	○ 조선대성은행과 홍콩 페레그린사가 운영하는 합영은행, 『페레그린-대성』은행 조업
2. 27	○ 평양시 만경대구역-중국 길림시간 친선활동에 관한 합의서 조인
3. 6	○ 북한 남남협조회사가 파키스탄에 건설한 카타이 수력 발전소 준공
3. 13	○ 독일 동아시아협회 평양사무소 개설
3. 15~20	○ 북한무역대표단(단장: 김정길 국제무역촉진위 서기장), 대만 방문
3. 19~23	○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 학자대표단(단장: 나카시씨요) 북한 방문
3. 26	○ KEDO 대표단(단장: 스테판 보스워즈), 북한 방문

시 기	내 용
3.28	○ 『큰물피해대책위원회』대변인, 수재지원관련 담화 발표
3.29	○ 북한, UNHHA에 추가수재지원 호소
3.30	○ 이탈리아 살레르노시에서 『조선개성고려인삼 과학토론회』개최
4. 2~16	○ 북한 무역대표단(단장: 이성대 대외경제위원장), 베트남 방문
4. 5	○ 중국 요녕성 친선 경제무역대표단(단장: 부성장 유국전), 평양 도착
4. 6	○ 북한 체신대표단(단장: 김학섭 체신부장), 불가리아 향발
4.10~12	○ 러시아연방 정부대표단(단장: 이그나텐코 부총리), 북한 방문 - 북·러 『무역·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』제1차 회의 의정서 조인(4.12)
4.11	○ 경공업위원회 피복연구소 강화대상(프로젝트), UNDP 협조계획에 따라 완공·조업
4.11~13	○ 에티오피아 정부대표단(단장: 스피안 아흐메드 재정장), 북한 방문
4.13~18	○ 러시아 연해변강 국립농업대학 대표단(단장: 알렉세이 제민총장), 북한 방문
4.14	○ 북한 과학기술대표단(단장: 최희정 국가과학기술위원장), 유고슬라비아 방문후 귀환
4.16	○ 이집트 건설 건재공업 근로자 총동맹대표단, 평양 도착
4.18~5.3	○ 북한경제대표단(단장: 곽범기 기계공업부장), 나이지리아 방문
4.20	○ UNCTAD(유엔무역개발회의) 참가차 북한대표단(단장: 김동명 대외경제위 부위원장), 남아프리카 향발

시 기	내 용
4. 20~23	○ 시리아·북한 친선협회대표단, 북한 방문 - 원산시·라따씨아시(시리아), 친선 및 자매관계 설정 합의서 조인(4.21)
4. 26	○ 김정우(대외경제위 부위원장), 조지워싱턴대 세미나에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관련 기초 연설
4. 29	○ 일·조 우호친선방문단(단장오다 슈조), 평양 도착
4. 29~5. 4	○ 일본학자대표단(단장:세끼 히로하루), 북한 방문
5. 4~6. 9	○ 직맹대표단(단장:김영남 부위원장), 러시아 방문
5. 6~6. 1	○ 당대표단(단장:김양건 부부장), 말레이시아 방문
5. 7	○ 『북적』,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회 창립 77돌 기념모임 및 사진전시회 개최
5. 10	○ 북·몽골간 수송분야에서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
5. 21	○ 정부대표단(단장:홍성남 부총리), 중국 방문
5. 25~28	○ 국제적십자연맹대표단(단장:조지브라이언 워버 총서기), 북한 방문
5. 27~6. 6	○ 과학기술협조대표단(단장:김응호 국가과학기술위 부위원장), 중국 방문 - 북·중간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5차 회의 의정서 조인(5.31)
5. 29	○ 강원도 친선대표단(단장:리청일 행정경제위 부위원장)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
6. 12~19	○ 중국 전력공업부 부부장(왕서성), 북한 방문 - 조·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49차회의 결정서 조인(6.19)



시 기	내 용
6. 17	○ 철도부대표단(단장: 박용석 철도부장), 철도협조기구 제24차상회의 참가차 슬로바키아 향발
6. 25	○ 말레이시아 정부기술경제대표단(단장: 세이크 아부 바카트 기초공업성 부상), 평양 도착

#### 4. 종합평가

- '96년도 북한의 경제시책은
  - 인민생활을 높이고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다지기 위해 농업, 경공업,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하고,
  - 당의 혁명적 경제전략 관철의 돌파구인 석탄공업, 금속공업부문과 철도운수부문에 힘을 집중하되
  -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극력 절약하여 생산증대를 도모한다는 것임.
- '96년도 상반기중 북한경제는
  - '한줌의 석탄, 한알의 낱알' 이라도 절약하는 가운데, 청년근로자 중심의 노력배가를 통한 생산 증대에 주력하였으나

- 최고인민회의 불개최로 금년도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고 재정을 파행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
  - 대내적으로는 지난해 7~8월 수재피해의 여파,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 현상 등을 타개하지 못함으로써 제조업 생산이 경공업부문의 일부 수출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었으며
  -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가장 주요한 교역대상국인 중국과의 무역이 감소한데다가 여타국과의 무역도 대부분 북한의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동향을 보였음.
  - 나진·선봉지구 개발에 있어서도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해외 자본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, 서방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.
- '96년도 상반기 산업부문별 생산동향을 보면
- 농업부문은 지난해의 수재 등으로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농경지 복구작업, 간척지의 농경지화 등 곡물생산 정상화를 위한 영농활동이 적극 전개되었으며
  - 건설부문은 재정부족으로 대규모 건설사업보다 탄광의 갱건설, 저수지, 탁아소 등의 소규모적인 단위사업을 위주로 건설을 추진, 전년동기 수준에 그쳤고

- 광공업부문 역시 위탁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경공업 공장들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으로 각공장·기업소의 가동율이 전년동기 수준을 겨우 유지하는데 그친 것으로 평가됨.

○ '96년 상반기중 북한의 대외무역은

- 수출이 크게 위축된다가 수입마저 줄어들었으므로 무역액이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 역시 전년동기보다 더욱 악화되었고
- 국가별 무역에 있어서 아직도 중국, 일본, 러시아 등 주요 3개국에 편중(60%이상)되어 무역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
- 수출입상품 구조면에서도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일부 몇몇 품목에 65~80%이상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
- 북한의 무역기반이 장기적 경제침체, 품질조약 등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하였음.

○ 이를 종합해 볼 때 상반기중의 북한경제는

- 북한당국이 총체적인 경제난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절약강조 및 노력선동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
- 지난해 수재이후 심각해진 식량사정 등 주민생활의 극심한 어려움이 사회전체로 확산되면서 근로자의 노동의욕 감퇴 및 당국의 경제통제력 저하 현상이 두드러짐으로써

- 만성적인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날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오히려 구조적 어려움만 가중된 것으로 평가됨.
  
- o 따라서 금년도가 완충기('94~'96년)의 마지막해임에도 불구하고 주안으로 내세웠던 농업, 경공업, 무역부문에조차 이렇다 할 실적을 낼 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며
  
- 향후 당분간 경제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< 부 록 >

'96년 상반기 북한경제일지



- '96. 1. 1 · 당·군·청년보, 신년 공동사설 발표
- 1. 2 · 북한경제대표단(단장: 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), 제8차  
아세아 지역 무역상 회의 참가차 요르단 향발
- 1. 3 · 평양시,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군중대회  
개최
- 1. 5 · 김정일, 알곡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한 안악군내 농촌  
청년 분조 청년 작업반원들에 감사 전달  
· 사로청 중앙위원회, 사로청 대표자회 소집과 관련한 공시  
발표
- 1. 6 · 평안북도 등, 새해 총진군을 위한 군중대회 진행
- 1. 7 · 김정일,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한 북청군  
당위원회 등 20개 단위와 일군들 및 근로자 15명에게 감사  
전달
- 1.10 ·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, 공동사설에 대한 연구모임  
개최  
· 황해남도 해주시, 김일성의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 
개최
- 1.12 · 사로청 창립 50돌,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막  
· 총련, '96 과업 수행을 위한 중앙열성자대회 개최 및  
김정일에 편지 전달

- 1.13 · 사로청 창립 50돌 경축 전국청년과학기술전시회 개최  
· 김일성 황해북도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1.14 · 사로청 창립 50돌 즈음 청년전위호 포 증정식, 원산시에서 진행  
· 사로청 창립 50돌 경축행사 및 대표자회 참가 대표자들, 평양 도착  
· 사로청 창립 50돌 즈음,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취주악대 행진  
· 사로청원들과 청년들, 사로청 창립 50돌 기념호 전기기관차 증정식
- 1.15 · 김정일, 인민군대 원호한 창광수출피복공장 일군 등에 감사  
· 사로청 창립 50돌 즈음 선전화 및 기념우표 제작  
· 온성군 - 왕재산간 무궤도전차선 공사 완공 개통식  
· 사로청 창립 50돌 경축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축하단, 김일성동상 참배  
· 모범적인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(김정일 표창 : 33명, 노력영웅 칭호 : 3명, 김일성청년영예상 : 73명)
- 1.16 · 사로청 창립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, 『4.25 문화회관』에서 진행



- 1.16 · 사로청 창립 50돌 기념행사 및 대표자 회의에 참가할 참가자들, 금수산기념궁전 방문
- 1.17 · 김정일, 사로청 조직들과 청소년 과외교양기지들에 선물  
· 사로청 대표자회, 『4.25 문화회관』에서 개막  
· 사로청 창립 50돌 경축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야회, 평양 체육관에서 개최  
· 북한 각지 사로청원들, 김일성동상에 꽃바구니 진정
- 1.18 · 사로청 대표자회 대표들, 만경대 등 방문
- 1.19 · 사로청 대표자회 폐막회의 진행(김정일 참석)  
· 김정일,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축하단과 “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” 일군들 및 모범적인 동맹원들을 접견하고 기념 사진 촬영  
·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길상봉 비서, 사로청 명칭 개칭 반향
- 1.20 ·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선포 경축 전국청년 전위들의 대회 개최(김일성경기장)
- 1.22 · 김정일 탄생 기념일을 앞두고 양강도내 청년 일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“정일봉” 답사 행군 진행(1.13-21일)
- 1.23 · 김정일, 평양-향산 관광도로와 봉화다리 등 주요 도로 건설에 위훈을 세운 군인들에게 감사문 전달

- 1. 23 · 불가리아 경제대표단(단장: 이반 벨 체프 무역 및 대외  
경제협조성 부상), 평양 도착
-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회 대표단(단장: 시몬 미 시리 아·  
태 부부장), 평양 도착
- 제4차 국제원자력기구 협상 대표단, 평양 도착
  
- 1. 24 · 불가리아 공화국 정부 경제대표단 등, 김일성동상 참배
- 전국농업근로자동맹 창립 50돌 예술축전, 평양에서 진행
  
- 1. 24~29 · 북한 원자력총국과 IAEA 협상 대표단, 제4차 협상 진행
  
- 1. 26 · 북한-불가리아, 경제·과학기술협의회 제20차 회의 의정서  
조인
- 공진태, 불가리아 무역 및 대외경제협조성 부상 일행 접견
  
- 1. 27 · 세계경제연단 연차회의에 참가할 북한 경제대표단(단장:  
대외경제위원회 이성대 위원장), 평양 출발
-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(단장: 강영섭), 마카오 향발
-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경제대표단, 귀국
-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회연맹 대표단, 평양 출발
  
- 1. 29~30 · 농근맹 창립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, 인민문화궁전에서  
진행
  
- 2. 2 · 북한 각 도·시·군,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선포 경축  
청년전위들 대회 진행

- 2. 3 · 전국청년과학기술 경험발표회(2.2, 청년중앙회관)
- 2. 5 · 김일성의 개천시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2. 6 · 조선대성은행과 홍콩 페레그린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합영 은행, 『페레그린-대성』은행 조업식 진행
- 2.10 · 고 이승기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원장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진행(애국열사능)
- 2.11 · 황북도내 일군·근로자들, 2월 명절 맞아 김정일에 충성 다짐
- 2.12 · 김정일 생일 54돌 기념 농근맹 일군 등과 직맹 일군들의 연구토론회 각각 진행(중앙로동자회관)
  - 2월 명절 즈음, 인민무력부와 평양시 행정경제위에서 각각 영화감상회 마련
  -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, 제8차 전원회의 진행
- 2.13 · 김정일, 김원명 사업소(중요대상 건설공사) 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
- 2.13~14 · 2월 명절 즈음, 직총, 농근맹, 여맹 일군들 충성의 맹세모임 각각 진행
- 2.14 · 김정일,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및 순천사슴목장에 감사 전달
  - 강반석탁아소 개소식, 평양 칠골에서 진행

- 2.14 · 평양시 행정경제위원장 교체 확인(박남기 → 양만길)  
· 남양탄광 8갱, 덕천탄광 남신갱 완공·조업
- 2.15 · 김정일 생일 5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(4.25 문화회관)  
· 김정일, 재일동포 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 1억 6백 6십 만엔 송금
- 2.22 · 김정일, 평양역 일꾼들 등에 감사 전달
- 2.23 · 김정일, 중요대상 건설자 지원 단위에 감사 전달  
· 김정일, 석탄 생산과 보장 및 지원사업 모범 단위들에 감사 전달  
· 전국직맹선전일꾼회의 개최
- 2.24 · 조선노동당 대표단(단장: 지재룡 부부장) 유고 및 불가리아 방문차 향발
- 2.25 · 농업위원회 국장(김용인), 농촌테제 발표 32돌 맞아 결의 표명  
· 수원광산,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탄산칼슘수출공장 완공  
· 조업
- 2.27 · 평양시 만경대구역 - 중국 길림시, 친선활동에 관한 합의서 조인
- 2.28 · 청춘거리에 『메아리사격관』 준공식 진행

- 2. 29 · 김정일,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 양강도 당위 일꾼들  
등에 감사 전달
- 김정일, 순천시 역전지구 등 주택건설 기여 단위에 감사  
전달
- 3. 2 · 중국 길림시 친선대표단(길림시장 전월창) 귀국
- 당중앙위, 7월31일탄광, 6월10일광산 등에 공동 순회  
우승기 및 표창장 수여
- 3. 4 · 토지개혁법령 발표 50돌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(기념보고  
: 부총리 홍성남)
- 국가과학원 용접연구소, 당중앙위 감사문 전달 모임
- 3. 6 · 북한 남남협조회사가 파키스탄에 건설한 카타이 수력발전  
소 준공식
- 3. 7 · 조선직맹대표단(부위원장 이진수), 네팔 노동조합총연맹  
제2차대회 참석차 평양 출발
- 김정일의 대동강여관 현지도 30돌 기념보고회  
(청년중앙회관)
- 3. 8 · 흑색금속설계사업소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3. 9 · 김일성 삼석구역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3. 10 · 김정일 함흥지구 현지도 10돌 기념보고회, 함흥대극장에  
서 개최

- 3.13 · 독일 동아시아협회 평양사무소 개설
- 3.14 · 김정일의 국제위성통신국 현지지도 10돌 기념보고회 개최  
· 북한 도서·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모스크바에서 개막
- 3.15 · 독일 동아시아협회 대표단을 위한 연회, 평양 고려호텔에  
서 개최  
· 공진태 부총리, 만수대의사당에서 독일 동아시아협회 대표  
단(단장: 에드가 E. 놀드만)과 환담  
※ 대외경제위 김정우 부위원장, 국제무역촉진위 이백숙  
부위원장 배석
- 3.15 · 김정일, 군부대와 영예군인들을 적극 지원한 『평양수산물  
백화점』에 감사 전달  
· 정무원 및 평양시 근로자, 나무심기운동 관철 궤기모임  
개최(5.1경기장)  
·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, 『북·러 경제 및 문화협조에  
관한 협정』체결 47돌 즈음 연회 개최
- 3.16 · 독일 동아시아협회 대표단, 공로로 귀국  
· 해주시, 해주시 근로자·일꾼에게 보내는 김정일의 감사  
전달모임 개최
- 3.18 · 『여맹』, 봄철 나무심기 궤기모임 진행(대성산)  
· 청소년·학생, 봄철 나무심기 궤기모임 진행  
(4.15 소년 백화원)

- 3.18 · 『북-러 경제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』체결 47돌 기념  
영화감상회 개최(천리마 문화회관)
- 3.19 ·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 학자 대표단(단장: 나카니씨요),  
평양 도착  
· 중앙방송, 『도쿄·평양우호교류회의』결성총회 개최
- 3.20 · 국가통계기관 창립 50돌 기념보고회, 중앙노동자회관서 진행
- 3.21 · 『전국 여맹 누에치기 열성자회의』 개최
- 3.23 ·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 학자대표단, 일본 향발  
·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(단장: 나가이 상야), 평양 도착
- 3.24 · 전국 농근맹 해설 강사회의 개최(평양)
- 3.26 · 프랑스 사절단(단장: 전 총참모장 잔느라까즈 대장), 평양  
도착  
· 일·조 우호친선 아이찌현 당위원 대표단(단장: 다카하시  
노리유키 자민당 아이찌현지부연합회 부회장), 평양 도착  
· KEDO 대표단(단장: 테판 보즈워스), 평양 도착
- 3.27 · 김부자 사리원시 현지교시·지도 30돌 기념보고회, 사리  
원 시당 회의실에서 개최
- 3.28 · 『큰물피해대책위원회』 대변인, 수재지원관련 담화 발표

- 3. 29 · 이종옥 부주석, 프랑스 사절단(단장: 구라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의회 위원장 잔느 라까즈) 접견
- 3. 30 · 프랑스 사절단, 귀국
- 일·조 우호친선 아이찌현 각당 위원 대표단(단장: 다카하시 노리유키), 귀국
- 3. 30 · KEDO 대표단(단장: 스테판 보스워즈), 경수로 부지 방문후 귀환
- 원산조선소, 조선노동당 중앙위 축하문 전달모임 개최
-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(단장: 나가이 싱야), 귀국
- 개성고려인삼에 대한 과학토론회가 이탈리아 쌀르드노에서 개최
- 3. 31 · KEDO 대표단, 함경남도 금호지구 시찰
- 4. 2 · 정부무역대표단(단장: 대외경제위원회 이성대 위원장), 월남 방문차 평양 출발
- 4. 3 · 『전국계획일군 열성자회의』,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
- 4. 5 · 제4차 북남 베이징 접촉을 가질데 대한 문제와 관련 북남 베이징 접촉 북측단장(전금철) 2번째로 남측대표단 수석 대표(이석채)에게 모사문을 보냈다고 보도
- 4. 5 · 4월 식수절을 맞아 당·정 간부들 금수산 기념궁전 주변과 만경봉에서 기념식수



- 4. 5 · 전국계획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 
진행(만수대의사당)  
- 13명에 국기훈장 1급, 71명에 노력훈장, 기타 메달수여
- 중국 요녕성 친선 경제무역대표단(단장:부성장 유국전)  
열차로 평양 도착
- 4. 6 · 체신부 대표단(단장:김학섭 부장), 열차편으로 불가리아  
향발
- 4. 7 · 제14차 『4월의 봄』 친선예술축전 개막  
·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청년 인민군 입대 탄원대회 개최  
· 개성시 청년학생 인민군 군대 탄원대회 개최
- 4. 8 · 중앙방송, 체신절 50돌즈음 국제통신국 기사장 기자회견  
보도  
· 신의주시 청년학생 인민군대 입대 탄원대회 개최
- 4. 9 · 김일성 노작 『환경보호사업을 개선·강화할데 대하여』  
발표 10돌기념 중앙보고회, 인민문화궁전에서 개최  
· 독일 동아상사 신경석 사장, 귀국
- 4. 10 ·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·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,  
인민군 입대 탄원대회 개최  
· 러시아연방 정부대표단(단장:아그나텐코 부수상), 해방탑  
헌화

- 4.10 · 정무원, 러시아연방 정부대표단 환영연회 개최
  - 북한 정부대표단, 이디오피아 정부대표단과 회담  
(만수대의사당)
  
- 4.11 · 개성시·신의주시 청년학생 인민군 입대 탄원대회 개최
  - 북·러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, 제1차 회의 개최  
(만수대의사당)
  - 경공업위원회 피복연구소 강화대상, UNDP 협조계획에 따라  
완공·조업 개시
  - 김일성의 박천견직공장 현지지도 40돌기념 보고회
  - 중앙인민위, 함경남도 수동구에 『모범 산림군 칭호』수여
  
- 4.12 · 에티오피아 정부대표단(단장:재정상 스피안 아흐메드),  
부총리 홍성남 면담
  - 러시아 연방정부대표단(단장:부총리 이그나텐코), 부주석  
이종욱 면담
  - 북한-러시아, 『무역·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』제1차  
회의 의정서 조인
    - 서명자 : (북한측) 부총리 홍성남  
(러시아측) 부총리 이그나텐코
  - 러시아연방정부대표단 귀국
  - 조총련 일꾼대표단(단장:총련 중앙상임위 부국장 이한수),  
재일 조선여성상공인 대표단 등 원산 도착

- 4. 13 · 에티오피아 정부대표단(재정상 스피안 아흐메드) 귀국
- 러시아 연해변강 국립농업대학 대표단(총장 알렉세이 제민)  
평양 도착
- 12월화력발전소 조업식 진행
  
- 4. 14 · 장철구대학(구 평양상업대학), 김일성 명제비 제막
- 평양시 청년동맹원들의 『청년전위호』무궤도전차 5대 증정  
모임
- 과학기술대표단(단장: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최희정),  
유고슬라비아 방문후 귀환
  
- 4. 16 · 이집트 건설 건재공업 근로자 총동맹 대표단, 평양 도착
- 무역대표단(대외경제위원장 이성대) 베트남 방문후 귀환
  
- 4. 17 ·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도 50돌기념 보고회 개최  
(함흥 대극장)
- 용성기계연합총국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  
- 4. 18 · 경제대표단(기계공업부장 곽범기) 나이제리아 향발
- 여맹대표단(여맹 부위원장 한계옥) 중국 향발
- 러시아 연해 변강 국립농업대학 대표단(총장 알렉세이  
제민) 귀국
  
- 4. 19 · 용문대굴 발굴 근로자들에게 김정일 감사 전달
- 총련 중앙상임위, 교육원조비·장학금 전달과 관련하여  
김정일에게 감사 전문

- 4.20 · 시리아·북한 친선협회 대표단, 평양 도착
  - UNCTAD(유엔 무역개발회의) 참가 북한대표단(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김동명), 남아프리카 향발
  - 총련일꾼대표단(중앙상임위 부국장 이한수), 평양 도착
  - 김정일의 평양방직기계공장 실습 35돌기념 ‘평양시 근로자 충성의 결의모임’ 진행
  
- 4.21 · 이집트 건설건재공업근로자총동맹 대표단, 평양시 참관
  -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선동원들에게 김정일 감사 전달
  - 원산시·라딱씨아시(시리아), 친선 및 자매관계 설정 합의서 조인(원산)
  
- 4.22 · 시리아·북한 친선협회 대표단, 당비서 황장엽 면담
  - 김일성의 함경북도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(청진)
  - 김일성의 흥남항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진행(흥남)
  - 총련 일꾼대표단 및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등 원산도착
  
- 4.23 · 시리아·북한 친선협회 대표단 귀국
  - 이집트 건설건재공업근로자총동맹 대표단 귀국
  
- 4.26 · 중앙인민위원회, 평양시 동대원피복공장 김일성 훈장 수여
  - 체신부 대표단(단장:김학섭), 불가리아 방문후 귀국
  
- 4.27 · 제5차 KEDO 부지조사단, 평양 도착

- 4. 28 · 『여맹』대표단(단장: 한계옥 중앙위 부위원장), 중국 방문 후 귀국
- 4. 29 · 일-조 우호친선방문단(단장: 오다 슈조), 평양 도착  
· 일본 학자대표단(단장: 세끼 히로하루), 평양 도착
- 4. 30 · 숙천군 농업기업연합소 청년전위, 충성의 궐기모임 개최
- 5. 1 · 이종옥 부주석,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5.1절 기념행사 참석  
· 박성철 부주석, 해주제련소 5.1절 기념행사 참석  
· 정무원 최영림 부총리, 황해제철연합기업소 5.1절 기념행사 참석  
· 최고인민회의 양형섭 의장, 남포제련연합기업소 5.1절 기념행사 참석  
· 노동당 정치국 한성룡 위원,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5.1절 기념행사 참석  
· 노동당 정치국 홍석형 후보위원,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5.1절 기념행사 참석  
· 정무원 장철 부총리, 평양선물악기공장 5.1절 기념행사 참석  
· 정무원 김복신 부총리, 평양종합방직공장 5.1절 기념행사 참석  
· 정무원 김윤혁 부총리, 김종태전기기관차종합기업소 5.1절 기념행사 참석

- 5. 1 · 서윤석 평안남도 인민위 위원장, 안주탄전연합기업소 5.1절 기념행사 참석
- 5. 2 ·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창립 50돌 기념보고회, 5.2 청년중앙 회관에서 개최
- 5. 2 ·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(5.2)
  - 김일성부자 송림시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5. 3 · 김정일,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유기화학과학자 등에 감사 전달
  - 기계공업부장 곽범기, 나이지리아 방문후 귀환
  - 김일성의 중화군 인민위 현지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5. 4 · 김정일, 농촌주택 건설에 기여한 해주시 '신광협농' 관계자 등에 감사 전달
  - 직맹대표단(단장: 부위원장 김영남), 러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
  - 일본 학자 대표단(단장: 세끼 히로하루), 귀국
- 5. 5 · 김정일, 보통강구역 편의봉사사업소 등에 감사 전달 (4.25문화회관)
- 5. 6 · 노동당 대표단(단장: 부부장 김양건), 말레이시아 방문차 평양 출발

- 5. 7 . 『북적』,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회 창립 77돌 기념모임  
및 사진전시회 개최
- 철도과학원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개최(인민문화궁전)
- 5. 8 . 김정일, 외교부 등 군 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관계자  
에 감사 전달
- 5. 9 . 김정일, 군민일치의 모범을 보인 황시청 소속부대 군인  
등 6명에게 감사전달
- 5.10 . 김정일, 국가과학원 의학과학연구원 어린이영양관리연구  
소 등에 감사 전달
- 북·몽골간 수송분야에서의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 및 외교  
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(평양)
- 중앙인민위, 만경대영예군인 만년필공장과 애국모란봉피복  
공장에 계관근위칭호 수여
- 5.11 . 김정일의 청산리 현지도 25돌 기념보고회 개최
- 5.12 . 중앙기관일꾼들, 청산협동농장에서 모내기 진행
- 5.13 . 양덕군 은하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의 은하협동농장 청년분  
조 자원진출 선전
- 제24차 제네바 국제발명 새기술 및 새제품전람회 참석대  
표단 귀환

- 5.15 · 김정일,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조양영예탄부공장 등에  
감사 전달
- 김정일화 재배경험 발표회 개최(청년중앙회관)
- 5.16 · 김정일, 단천시내 선동대원들에 감사와 선물 전달
- 5.17 · 향산호텔 창립 10돌 기념보고회
- 5.21 · 김일성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식 참가 50주년 기념모임  
(보통강 개수공사 기념탑)
- 정부대표단(단장: 부총리 홍성남), 중국 방문
- 5.22 · 당 중앙위, 무역선 대홍단호 당원들과 선원들에 감사 전달
- 5.25 · 국제적십자자연맹 대표단(단장: 총서기 “조지 브라이언 워  
버”), 평양 도착
- 5.26 · 김정일, 군 원호사업에 모범을 보인 김책제철 등에 감사  
전달
- 5.27 · 부주석 이종옥, 국제적십자자연맹 대표단과 담화
-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, 러시아연방 국가회의 대표단  
과 담화
- 최고인민회의 대표단, 러시아연방 국가회의 대표단과 회담  
진행
- 과학기술협조대표단(단장: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  
김응호),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



- 5. 28 · 김정일, 군·민일치관련 허천강발전소 등에 감사 전달
- 김일성의 평양방직기계공장 현지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개최(중앙노동자회관)
- 부주석 이종옥, 러시아연방 국가회의 대표단과 담화
- 국제적십자연맹 대표단, 귀국
  
- 5. 29 · 러시아연방 국가회의 대표단, 귀국
- 중국정부 경제대표단(단장: 대외무역합작부 부부장 석광생), 평양 도착
- 강원도 친선대표단(단장: 행정경제위 부위원장 리청일), 중국 방문차 평양 출발
  
- 5. 30 · 김일성의 평남 관개시설 시찰 40돌 즈음 농근맹원들과 근로자모임 개최
  
- 5. 31 · 파키스탄이 쌀 5천톤을 지원했다고 보도
- 북·중국간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35차 회의 의정서 조인 (북경)
  
- 6. 1 · 노동당 대표단, 말레이시아 방문후 귀환
  
- 6. 3 · 박두선 애국차 봉사사업소 창립 10돌 기념보고회 개최 (인민문화궁전)
  
- 6. 4 · 신천군 학생소년회관 개관모임 개최

- 6. 5 · 중국 정부 경제대표단, 귀국
- 6. 6 · 과학기술협조 대표단, 중국 방문후 귀환
  - 김일성의 미림별 모내기 49돌 기념보고회 개최
- 6. 7 · 6.4 현재 전국적으로 71% 모내기 진행 보도
- 6. 9 · 김정일, 건설건설부문 일꾼들에 감사 전달
  - 직맹대표단, 러시아연방 방문후 귀환
- 6.10 · 김정일, 군 원호사업 일꾼들과 근로자들에 감사 전달
  - 김정일, 금강산발전소 시찰
- 6.11 · 김정일, 조총련 조은지바신용조합 동포 조국방문단에 연회 마련
- 6.12 · 중국 전력공업부 부부장( '왕서성' ), 평양 도착
  - 금강산발전소 군인들과 건설자들, 김정일의 감사 전달 모임 진행
- 6.14 · 부총리 장철, 조·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중국측 대표단과 담화
  -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,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무진대청년탄광 개건 확장공사 궐기모임 진행
- 6.16 · 북·KEDO간 『통신·통행관련 의정서』 체결합의 보도
  - 당·정 간부들, 금강산발전소 참관
  - 조선기독교도연맹대표단, 일본 방문후 귀환

- 6.17 · 철도부대표단(단장: 부장 박용석), 철도협조기구 제24차 상 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
  - 김정일의 당사업 시작 32돌 즈음 근로단체들, 연구토론회 개최
- 6.18 · 김정일의 당사업 시작 32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 (4·25문화회관)
- 6.19 · 중국 전력공업부 대표단, 귀국
  - 조·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49차회의 결정서 조인
- 6.21 · 항일혁명투사 유가족 등, 금강산발전소 건설자 격려 보도
- 6.24 · 노동법령 발포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(인민문화궁전)
  - 서해갑문 준공 10돌 기념보고회 개최(남포극장)
  - 김정일, 녕원발전소 및 인민군 제770군부대 후방기지 시찰
- 6.25 · 말레이시아 정부 기술경제대표단(단장: 기초공업성 부상 '셰이크 아부 바카르'), 평양 도착
- 6.26 · 노동당 중앙위, 화물선 오산덕호 당원들과 선원들에게 감사문 전달
- 6.28 · 노동당 중앙위, 애국모란피복공장 노동계급과 일꾼들에 감사문 전달
- 6.29 · IAEA 협상대표단, 평양 출발
- 6.30 · 금강산발전소 100리 대형물길굴 통수식 진행 보도

